

2023년 2월 26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조은석 목사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My heart is steadfast, O God!
I will sing and make melody with all my being!
2 Awake, O harp and lyre!
I will awake the dawn!
3 I will give thanks to you, O Lord, among the peoples;
I will sing praises to you among the nations.
4 For your steadfast love is great above the heavens;
your faithfulness reaches to the clouds.
5 Be exalted, O God, above the heavens!
Let your glory be over all the earth!
6 That your beloved ones may be delivered,
give salvation by your right hand and answer me!
시편 Psalm 108:1-6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 얻게 하옵소서. 세상에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시리아에 임한 대지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몸이 불구가 되어 고통을 겪는 셀 수 없이 많은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잠자리를 허락하옵소서.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온 세계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실라-디모데 Paul-Silas-Timothy

사도행전 Acts 16:1-5

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Paul came also to Derbe and Lystra. A disciple was there, named Timothy, the son of a Jewish woman who was a believer, but his father was a Greek.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He was well spoken of by the brothers at Lystra and Iconium.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Paul wanted Timothy to accompany him, and he took him and circumcised him because of the Jews who were in those places, for they all knew that his father was a Greek.
4.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As they went on their way through the cities, they delivered to them for observance of decisions that had been reached by the apostles and elders who were in Jerusalem.
5.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 가니라.
So the churches were strengthened in the faith, and they increased in numbers daily.

2023년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러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복구를 위한 특별헌금을 오늘까지 드립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오병이어서 주님의 손에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의 새로운 팀이 꾸려졌습니다. 기획 당시는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겼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중간에 일행을 떠났던 마가요한(John Mark)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Barnabas)는 마가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바울(Paul)에게는 바나바 대신 실라(Silas)가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두 가지 면을 봅니다. 1. 선교지 중심의 선교팀 꾸리기입니다. 이 경우 선교팀은 “일사분란” 해야 합니다. 염두에 둘 것은 자칫 선교팀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선교팀 중심의 선교팀 꾸리기입니다. 이 경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영적 훈련을 감당합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선교사역이 자칫 자기교육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다가 더베(Derbe)와 루스드라(Lystra)에 이르러 디모데(Timothy)가 이들과 합류합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젊은 종입니다.

이들 셋이 꾸린 제2차 선교여행팀은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역사(history)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종종 “His-Story” 라고 풀어쓰기도 합니다.

교회역사(church history)는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의 몸 된 교회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땅 끝까지 증거 하는 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받은 주의 종들의 말씀순종(obedience to the Word)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우리는 성령님(Holy Spirit)과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싸움터(spiritual battlefield)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날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한 그대로,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시험과 역경 중에도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그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until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매년으로 나누고, 매년을 매월로 구분하며, 매월을 주일 단위로 끊고, 주일을 하루로, 하루를 시간으로, 시간을 분으로, 분을 초 단위로 갈라, 순간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For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sanctification. That you abstain from sexual
immorality.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4:3

어떤 성취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보다 성도의 거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경우
선교팀이 거룩함으로 강화됨이 필수입니다. 선교팀이 거룩하지 못할 경우 밖에 나가 문제를
만드는 우를 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Paul came also to Derbe and to Lystra. A disciple was there, named Timothy, the son of a
Jewish woman who was a believer, but his father was a Greek.**

바울이 더베(Derbe)와 루스드라(Lystra)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고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들을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하심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쳤습니다.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바울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보통사람이라면 “트라우마” 때문에
발걸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1981년 조치원에서 군사훈련 받던 시절에 일평생
다시는 조치원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에 부모님 묘소가 있는
대전 현충원 다녀오는 길에 어떤 국수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조치원이었습니다. 무려 41년 만에,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치원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구원 받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는 가능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디모데(Timothy)를 만났습니다. 마치 지진 후에, 불탄 자리에서 새로 돌아나는
나무 숲을 발견한 기쁨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하여 그의 믿음의 유산을 말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투옥 중 데모데후서(2
Timothy)를 기록할 때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I am reminded of your sincere faith, a faith that dwelt first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your mother Eunice and now, I am sure, dwells in you as well.
디모데후서 2 Timothy 1:5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Eunice)가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 신앙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Lois)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흔히 대를 이어 신앙 생활하는 가정,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경우는 외조모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머지않아 그의 딸인 디모데의 어머니가 신앙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된 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므로, 이들 두 여인들은 오랜 시차를 두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두 사람의 신앙이 젊은 디모데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He was well spoken of by the brothers at Lystra and Iconium.**

디모데는 이미 “제자”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의 형제들에게서 칭찬 받는 자였습니다.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아러라.
Paul wanted Timothy to accompany him, and he took him and circumcised him because of the Jews who were in those places, for they all knew that his father was a Greek.**

바울은 그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앞서 마가요한의 경우를 생각했으면 젊은 누구와 동행하는 것을 손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성령님께서 바울을 감동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을 만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And he sent and brought him in. Now he was ruddy and had beautiful eyes and was handsome. And the Lord said, “Arise, anoint him, for this is he!”
사무엘상 1 Samuel 16:12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실시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구원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을 고려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도 예루살렘공의회(Jerusalem Council)에서 할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시점에?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데 걸림돌을 두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But take care that this right of yours does not somehow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e weak.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8:9

어떤 사람들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경우,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럴 경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Therefore, if good makes my brother stumble, I will never eat meat, lest I make my brother stumble.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8:13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실시한 것은 구원의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목회적 배려였습니다.

4.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As they went on their way through the cities, they delivered to them for observance of decisions that had been reached by the apostles and elders who were in Jerusalem.

이제 바울-실라-디모데 세 사람이 원팀이 되었습니다.

실라를 주목합니다. 그는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교회에서 사역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람공의회를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떠날 때 동행했습니다. 안디옥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통해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사역을 마친 그가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그에게 제2차 선교여행에 동참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한 그는 다시 먼 길을 걸어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5:34가 “없음”으로 표기되는데, 이에 따른 추측입니다. 혹시 어떤 사본을 따른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함께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후에 천국에서 그를 만나면 묻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 팀은 곧바로 북쪽으로 향하여 수리아(Syria)와 갈라디아(Galatia)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더베(Derbe)와 루스드라(Lystra)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실라는 들었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특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도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실라는 바울과 함께 어떤 젊은이 제자를 만났습니다. 디모데(Timothy)였습니다. 바울이 특히 그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실라는 동의했습니다.

5.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 가니라.

So the churches were strengthened in the faith, and they increased in numbers daily.

이들 세 사람이 동행하는 제2차 선교여행을 통해 여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실라-디모데, 이들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 (human relationship)가 없었습니다. 오직

부르신 분, 예수님께서 한 분이셨던 것이 그들 한 팀 결합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I therefore, a prisoner for the Lord, urge you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to which you have been called, with all humility and gentleness, with patience,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eager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just as you were called to the one hope that belongs to your call.

에베소서 Ephesians 4:1-4

앞으로 이들 원팀이 제2차 선교여행에서 경험하고 증언할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들은 소아시아를 거쳐, 드디어 유럽에 상륙합니다. 유럽선교의 첫 발걸음을 뚝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로마서 Romans 8:28

선교사역 중에, 선교지에서, 서로 깊이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놀랍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연결되어 하나의 팀으로 사역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도움이 예상을 넘어 의외의 손을 통해서 옵니다. 이번에 최관신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간호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날마다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입니다.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의 한 토막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성령님께서 하나하나의 교회를 모두 모아 거룩한 공회가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공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합니다. 이렇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두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 받은 주님의 모든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